

2021년 2월 18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금리 이슈 우려 불구하고 낙폭 축소

연준, 경제 여건 불안이 여전해 채권 매입 축소는 시간 걸릴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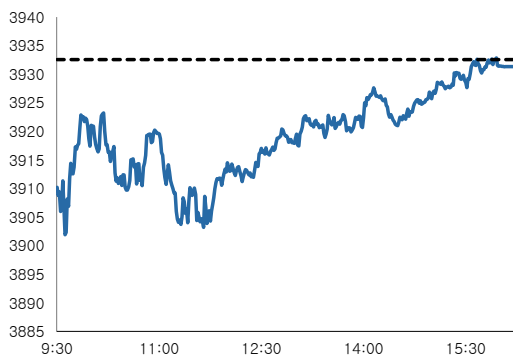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경제지표, 국채금리, FOMC 의사록

미 증시는 경제지표가 개선되자 장기 금리 상승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산되며 하락 출발. 더불어 양호한 실적 발표한 기업들도 선 반영이 되었다는 평가 속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 된 점도 영향. 다만 인플레이션 압력은 일시적일 뿐 연준의 정책 변경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이 부각되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이 축소. 물론 장기 금리 상승을 둘러싼 우려는 지속돼 나스닥은 하락(다우 +0.29%, 나스닥 -0.58%, S&P500 -0.03%, 러셀 2000 -0.74%)

미국 1월 소매판매가 예상(mom +1.1%) 보다 크게 개선된 전월 대비 5.3% 증가. 자동차와 가솔린을 제외한 수치도 예상(mom +0.5%)를 크게 상회한 전월 대비 6.1% 증가. 산업생산 또한 예상(mom +0.5%) 보다 개선된 전월 대비 0.9% 증가 했으며 공장가동률도 예상(74.8%) 보다 양호한 75.6%로 발표. 여기에 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1.3% 상승했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또한 전월 대비 1.2% 상승. 이러한 지표 결과는 경제 정상화 기대를 높였지만 잠재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 또한 높임. 최근 시장은 장기 금리 상승에 대한 불안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경제지표 발표가 결국 성장주에 대한 매물을 야기시켜 나스닥이 한 때 1.7% 하락

한편, 큰 폭으로 개선된 경제지표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전일 급등에 따른 되돌림 현상이 부각되며 하락. 그러나 20년물 국채 입찰에서 응찰률이 6번 평균(2.34배)을 하회한 2.15배를 기록하는 등 채권 수요 둔화 소식이 전해지자 재차 국채 금리는 상승 전환 하기도 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시간이 지나며 낙폭이 축소되거나 다우지수는 상승 전환에 성공.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산될 경우 연준의 정책 변경 가능성이 높아지며 주식시장에 부담이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실제 이날 발표된 FOMC 의사록에서 연준은 불확실성이 여전해 경제 여건은 목표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주장. 이는 채권 매입 축소 등 정책 변경은 시간이 걸릴 것임을 의미하고 있어 온건한 통화정책 지속 기대를 높임. 물론 여전히 장기 금리 상승으로 인한 펀더멘탈 약화 우려는 이어지고 있어 향후에도 금리 추이는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3,133.73	-0.93	홍콩항셍	31,084.94	+1.10
KOSDAQ	979.77	+0.21	영국	6,710.90	-0.56
DOW	31,613.02	+0.29	독일	13,909.27	-1.10
NASDAQ	13,965.50	-0.58	프랑스	5,765.84	-0.36
S&P 500	3,931.33	-0.03	스페인	8,122.70	-0.38
상하이종합	3,655.09	휴장	그리스	788.75	-0.90
일본	30,292.19	-0.58	이탈리아	23,178.56	-1.1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버핏의 힘

전자상거래업체인 소피파이(-3.32%)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 불구 올해 매출 둔화를 시사하자 하락했다. 잇츠(-2.59%)도 하락 했다. 아나로그디바이스(-0.46%)는 양호한 실적과 가이던스 발표에도 불구하고 차익 매물로 하락 했다. TI(-1.23%)도 동반 하락했다. 비트코인이 5만 2천달러를 넘었지만 NVIDIA(-2.77%), 페이팔(-2.49%)은 물론 마이크론(-1.93%) 등이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하락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87% 하락했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솔라엣지(+1.04%)는 상승했으나 퍼스트솔라(-2.91%), 선파워(-6.30%) 등 여타 태양광 업종은 하락을 이어갔다. 이항(+67.88%)은 전일 공매도 관련 헤지펀드 보고서로 급락 했으나 회사가 수많은 오류가 있다며 반박 하자 급등했다.

반면, 버라이즌(+5.24%)과 셰브론(+3.00%), 방송사인 스크립스(+5.29%), 보험사인 마시 앤 매클레너(+2.78%)는 버크셔해서웨이가 비밀리에 매입했던 종목으로 알려지자 상승했다. 머크(+1.74%), 엡비(+2.01%), 브리스톨마이어스(+2.00%) 등도 지분 증가 소식에 상승했다. 반면, 지분 축소된 애플(-1.76%), PNC(-1.39%)는 하락 했다. 애플은 유럽 규제 당국이 규정을 강화할 것이라는 소식도 하락 요인이었다. 테슬라(+0.24%)는 당시 버핏이 비밀리에 매수한 종목이라는 루머가 있었으나 사실이 아니자 장 중 한 때 4% 넘게 하락했으나 반발 매수세 유입되며 상승 전환했다. 웰스파고(+5.17%)는 위험관리 개편 제안을 연준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소식으로 급등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동락률	ETF 종류	동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1.13%	대형 가치주 ETF(IVE)	+0.31%
에너지섹터 ETF(OIH)	+0.20%	중형 가치주 ETF(IWS)	-0.20%
소매업체 ETF(XRT)	-0.78%	소형 가치주 ETF(IWN)	-0.58%
금융섹터 ETF(XLF)	+0.50%	대형 성장주 ETF(VUG)	-0.36%
기술섹터 ETF(XLK)	-0.88%	중형 성장주 ETF(IWP)	-0.67%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30%	소형 성장주 ETF(IWO)	-0.91%
인터넷업체 ETF(FDN)	-1.16%	배당주 ETF(DVY)	+0.30%
리츠업체 ETF(XLRE)	+0.08%	신흥국 고배당 ETF(DEM)	+0.35%
주택건설업체 ETF(XHB)	+0.06%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08%
바이오섹터 ETF(IBB)	+0.31%	미국 국채 ETF(IEF)	+0.07%
헬스케어 ETF(XLV)	+0.36%	하이일드 ETF(JNK)	-0.01%
곡물 ETF(DBA)	-0.41%	물가연동채 ETF(TIP)	-0.04%
반도체 ETF(SMH)	-1.94%	Long/short ETF(BTAL)	+0.19%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347.55	+1.45%	+5.51%	+5.54%
소재	465.57	-0.13%	+0.64%	-2.17%
산업재	760.01	-0.31%	-0.06%	+0.86%
경기소비재	1,371.36	+0.65%	-0.87%	+2.74%
필수소비재	676.69	+0.39%	-0.20%	+0.58%
헬스케어	1,356.79	+0.36%	+0.41%	-1.23%
금융	534.08	+0.36%	+2.81%	+3.58%
IT	2,402.23	-1.03%	+0.09%	+5.81%
커뮤니케이션	239.70	+0.48%	+1.65%	+10.24%
유틸리티	314.11	+0.11%	-2.13%	-1.58%
부동산	236.53	+0.08%	-0.56%	+5.1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상승 출발 후 외국인 행보에 따라 변화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는 0.67% 하락, MSCI 신흥 지수 ETF는 0.03% 상승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06.4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원 하락 출발을 예상한다.

전일 한국 증시는 미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우려가 확산되자 이를 빌미로 그동안 상승이 컸던 대형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했다. 특히 외국인이 현물 순매도세를 확대한 가운데 선물 매도 또한 높이며 프로그램 매물이 유입된 점이 하락 요인으로 추정한다. 그런 가운데 미 증시가 비록 약세를 보였으나 양호한 경제지표 특히 한국 수출의 선행 지표 중 하나인 소매판매 및 산업생산의 큰 폭 개선은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더불어 연준의 온건한 통화정책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FOMC 의사록 공개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미국 1월 산업생산에서 자동차 생산은 반도체 부족으로 전월 대비 0.7% 감소 했으나, 하이테크 부문이 1.5% 증가 했고 공장 가동률이 전월 보다 0.7%p 상승한 75.6%를 기록했다는 점은 향후 한국 수출 증가 기대를 높인다. 다만, 미 증시가 개선된 실적 발표 등에도 차익 실현 욕구를 높이며 하락을 보인 일부 기업들의 움직임은 부담이다. 여전히 외국인의 차익 매물 출회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 요인을 감안하면 한국 증시는 상승 출발 이후 전일의 변화와 같은 외국인 현, 선물 수급 동향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 될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실물 경제지표 개선

1월 미국 소매판매는 전월 발표치(mom -1.0%)나 예상(mom +1.1%)를 상회한 5.3% 증가로 발표되었다. 자동차를 제외한 수치는 5.9% 증가, 운송과 가솔린을 제외한 수치도 6.1% 증가했다. 음식료 매장은 전월(mom -1.4%) 보다 개선된 2.4%, 음식 서비스 및 술집도 전월(mom -4.6%) 보다 개선된 6.9% 증가로 발표됐다.

1월 미국 산업생산은 전월 발표치(mom +1.3%)는 물론 예상(mom +0.5%)를 상회한 0.9%로 발표되었으며 제조업 생산 또한 예상(mom +0.5%)를 상회한 1.0% 증가로 발표됐다. 공장 가동률은 전월(74.9%)은 물론 예상(74.8%)을 상회한 75.6%로 발표되었다.

1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3% 상승해 예상(mom +0.4%)을 상회했으며 전년 대비로도 1.7% 상승 했다.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0% 상승했다. 에너지가 전월 대비 5.1% 급증해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여파가 컸다.

2월 주택시장 지수는 전월(83) 보다 개선된 84로 발표돼 향후 주택지표 개선 기대를 높였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상승세 지속 Vs. 달러 강세, 국채금리 하락

국제유가는 텍사스를 강타한 겨울 폭풍으로 미국 남부 지역의 셰일 오일 시추 시설이 멈추는 등 공급 중단 소식이 지속되자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로 인해 하루 최소 2 백만 배럴 감소되고 있다는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더불어 시장 참여자들이 지난 주 원유재고에 대해 220 만 배럴 감소했을 것이라는 전망도 상승 요인이었다.

달러화는 견고한 경제지표 결과 발표로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여기에 미국 경제 정상화 기대가 확산된 점도 달러 강세 요인 중 하나였다. 더불어 애틀란타 연은이 1 분기 GDP 성장률에 대해 지난 2 월 10 일 발표된 4.5% 성장에서 9.5%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미국 경제 개선 기대 또한 달러 강세 요인 중 하나였다.

국채금리는 큰 폭으로 개선된 경제지표 결과 상승 출발 했으나 전일 급등에 대한 되돌림이 유입되며 하락 전환 했다. 그런 가운데 20 년물 국채 입찰에서 응찰율이 6 번 평균(2.34 배)를 하회한 2.15 배, 간접입찰도 60.6% 보다 낮은 54.9%를 기록하는 등 채권 수요 감소 소식에 재차 상승 전환하기도 했다. 그러나 연준이 FOMC 의사록 공개를 통해 목표로 하는 경제 여건에 여전히 멀리 있다고 언급하며 채권 매입 축소 정책 변경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온건한 통화정책을 시사하자 재차 하락하며 마감했다.

금은 달러 강세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구리 및 비철금속도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했다. 다만 미국 실물 경제지표 개선 및 국제유가 상승으로 낙폭은 제한 됐다. 대두, 옥수수 등 곡물 또한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1.14	+1.82	+4.76	Dollar Index	90.920	+0.45	+0.61
브렌트유	64.34	+1.56	+4.67	EUR/USD	1.2043	-0.52	-0.62
금	1,772.80	-1.46	-3.52	USD/JPY	105.88	-0.15	+1.23
은	27,315	-0.04	-0.32	GBP/USD	1.3866	-0.27	+0.23
알루미늄	2,115.00	+1.37	+1.73	USD/CHF	0.8988	+0.71	+0.94
전기동	8,390.00	-0.18	+1.09	AUD/USD	0.7751	-0.09	+0.38
아연	2,816.00	-0.41	+3.34	USD/CAD	1.2701	+0.09	0.00
옥수수	550.75	+0.18	-0.63	USD/BRL	5.4129	+0.65	+1.03
밀	648.00	-2.04	-0.92	USD/CNH	6.4354	+0.16	+0.10
대두	1,384.75	-0.07	-1.00	USD/KRW	1107.50	+0.67	-1.08
커피	127.40	+0.95	+1.92	USD/KRW NDF1M	1106.45	-0.11	-0.03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282	-3.20	+15.96	스페인	0.287	-0.60	+14.20
한국	1.862	+1.70	+3.50	포르투갈	0.184	-0.10	+10.10
일본	0.099	+1.40	+1.60	그리스	0.808	+4.10	+2.50
독일	-0.368	-2.00	+6.90	이탈리아	0.584	+1.30	+8.1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